VIEWPOINT

낭만이 흐르는 숲속으로의 힐링 예술 산책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
6.27(토)~7.25(토) | 예술의전당 연못무대

예술의전당 뒤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장소인 우면산 자락의 연못무대에서 색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산자락 작은 연못 우면지(池)에 자리 잡고 있는 연못 무대에서 처음 진행되는 야외 행사로, 오는 6월 27일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클래식 음악부터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예술의전당 예술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예술가에게는 무대를, 관객에게는 음악을 제공하는 상생과 힐링의 야외 음악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예술로 상생을 꿈꾸는 예술의전당 예술기부 캠페인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을 바꾼 지 벌써 5개월째. 공연으로 삶을 위로받던 관객들도, 공연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예술가들도 모두 무대를 그리워 한지 오래다. 예술의전당은 이러한 관객들과 예술가들을 위해 공연을 통해서 위로와 온정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기부 캠페인'이다. 기부금으로 더 많은 무대를 만들어 예술인들과 스태프들이 다시 활발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는 예술향유의 기회를 돌려주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1만원부터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이 캠페인을 벌인 지 약 2주만에 벌써 작지만 내실 있는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금액이 모였다. 특히, 이 기부 캠페인은 현재 누구 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예술가들과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시민들을 위해 공연 준비 및 제작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고, 바로 그 첫 무대가 오는 7월에 시작된다.

예술기부 캠페인을 응원하는 예술가들의 오프닝 무대

자연이 무대가 되는, 규모는 작지만 전해지는 감동은 큰 공연장. 예술의전당 연못 무대의 첫 공연은 이번 예술기부 캠페인을 응원하는 예술가들의 오프닝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한 예술가들의 참여로 본 캠페인과 연못 무대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된 <오프닝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이 꾸미는 현악 4중주 무대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배우이자 소리꾼인 김명곤이 색다른 무대를 준비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바이올리니스트 이한나 ⓒOscarsca

첼리스트 이정란 ⓒJino Park

그 첫 무대인 6월 27일(토) 음악회에서는 현악기가 가진 모든 매력을 보여줄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김지윤,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이 연주자로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는 동양인 최초, 오케스트라 역대 여성 최초로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의 제2바이올린 악장으로 임명되어 저력을 뽐낸 연주가다. 또한, 서울시향 첼로 부수석을 역임하고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며 국내외 연주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2015년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월간『객석』)로 선정된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모두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중 2악장,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중 1-4번·7번, 헨델-할보센의 '파사칼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드보르자크 현악 4중주 '아메리카'의 1, 4악장을 마지막으로 연주하며 현악의 매력적인 소리를 60분 동안 선사할 예정이다.

김명곤의 소리여행 무대에 오를 김명곤

가야금 연주와 노래를 선보일 이정표

특별 게스트 테너 정규남

7월 4일(토) 두 번째 무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소리꾼 김명곤이 '김명곤의 소리여행'이라는 타이틀로 관객과 만난다. '숲속의 소릿길'이라는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소리는 물론 성악 레퍼토리를 국악기와 김명곤의 음색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프로그램은 '숲의 향기', '소릿길 따라', '끝나지 않는 항해'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김명곤을 비롯해 가야금 · 노래 이정표, 피아니스트 배혜진, 테너 정규남이 출연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 가곡, 아리아, 판소리 등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찾아 초여름 저녁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예술기부 캠페인의 첫 공연: 영 아티스트를 무대로

예술기부 캠페인의 첫 공연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연주 무대다. 몇 해 전부터 실력이 뛰어난 신인 음악인들의 도약 발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 (사)영아티스트포럼앤페스티벌과 함께 기획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연주자들을 가까운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연주자들에게는 좀처럼 마주하기 어려웠던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가 열릴 우면지 연못무대 전경

무대가 달라지면 음악이 주는 감흥의 빛깔도 달라진다. 공개적으로 처음 선보이는 예술의전당 연못무대에서 매혹적인 현악의 선율과 동서양 음악의 향연에 우리 모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유연경** 예술의전당 미래전략실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 공연 프로그램

<The Opening 1-현악의 모든 것> 6월 27일(토) 7:30PM
출연자: 바이올린 이지혜, 바이올린 김지윤, 비올라 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

-프로그램-
하이든 | 현악 4중주 '황제' 중 2악장
바이올린 이지혜, 바이올린 김지윤, 비올라 이한나, 첼로 이정란

글리에르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중 1-4, 7번
바이올린 이지혜, 첼로 이정란

헨델 – 할보센 | '파사칼리아'
바이올린 김지윤, 비올라 이한나

드보르자크 |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중 1, 4악장
바이올린 이지혜, 바이올린 김지윤, 비올라 이한나, 첼로 이정란

<The Opening 2-김명곤의 소리여행 '숲속의 소릿길'> 7월 4일(토) 7:30PM
출연자: 노래 김명곤, 가야금·노래·사회 이정표, 피아니스트 배혜진, 테너 정규남

-프로그램-
1부 숲의 향기
박판길 | '산노을'
김동진 | '내 마음'
김동진 | '수선화'
노래 김명곤

피에트리 | 오페라 <마리스텔라> 중 '나는 숲속의 한 정원을 알고 있네'
노래 정규남

2부 소리길 따라
김수철- 이정표 | 영화 <서편제> 주제곡 '소릿길'
빈첸초 데 크레센초 | '제비는 돌아오건만'
푸치니 |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노래 김명곤
이정표 | 드라마 <바람의 나라> 주제곡 '황조가'
노래 이정표

3부 끝나지 않는 항해
호세 마리아 라까예 | 스페인 민요 '아마폴라'
이정표 편곡 |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 | 이태리 민요 '바다로 가자'
노래 김명곤

이정표 편곡 | 한국민요 '뱃노래 연곡'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뱃노래'
조두남 | '뱃노래'
경기민요 '자진뱃노래'
노래 김명곤

<Young &Green> 예술의전당 X (사)영아티스트포럼앤페스티벌
7월 11일(토) 듀오 피다(플루트 한여진, 하프 황세희) + 송현민 음악평론가(진행)
7월 18일(토) 아더 첼로 콰르텟(첼로 박건우, 이성빈, 이상은, 이호찬)
7월 25일(토) <바흐로 만나는 실내악>(바이올린 김동현, 비올라 이승원, 첼로 강승민)

*8월 출연자 및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